

“한 사람의 벗, 모두의 벗”

www.hanbeot.org

사람 세상

격 월 간 발 행

2024. 10/11

vol.305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하나의 벚, 모두의 벚”



한 벚 이 하 는 일



뇌병변 단기거주시설 운영
(정원 10명,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주말 혹은 단기위탁 가능)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뇌병변,지체 주간보호, 정원 10명)

휠체어날개달기 기금
(미얀마, 필리핀 등 빈곤국장애인 휠체어 및 중고 유아차 장애아동에게 기증)



미안마방정환기금
(어린이잡지 1,000권을 미안마의 농촌학교와 고아원에 매월 기증)

한벚투어
(장애인 국내 및 해외여행지원/리프트 버스 및 승합차 운영)



한벚보조공학센터
(전동휠체어 및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보조기구 지원)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운영
(고양시 지축동의 임대아파트 단지 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사업 수행)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휠체어를 타는 저와 침대에 누운 우리 남편이 지난 10월 초 1박2일 강원도 동해 여행에 나섰습니다. 남들은 마음만 먹으면 훌쩍 떠날 수 있지만 우리 부부는 정말 큰 용기를 낸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뇌병변 2급이었으나 10년 전부터 사지마비로 눕게 되어 바깥 외출은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5년 전부터는 폐부종으로 호흡곤란이 와서 두 달 동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투를 벌이기도 했구요.

그런데 꿈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50년 지기 장애인 절친에게서 한벗재단의 와상장애인 여행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누워 사는 사람이 여행은 무슨?" 하며 고개를 돌려버렸지요.

사실 우리 부부는 두려웠습니다. 처음엔 너무 반가워 신청했다가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상욱 선생님(와상여행 담당자)이 다독이며 기다려준 끝에 남편이 마침내 비장한 마음으로 수락한 것입니다.

드디어 동해로 출발~~

남편은 설악케이블카에 오르며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5년 전에는 내가 두 발로 걸어 케이블카를 탔었지."

한없이 펼쳐진 바다를 남편은 오래오래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겨운 방에서 벗어난 우리 부부는 모든 여정이 감격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여행을 다녀온 후 저희 부부는 날마다 이 노래를 부릅니다.

침울하던 병상에 생기를 불어 넣어준 한벗재단이 정말 고맙습니다.

이 글은 지난 10월 와상장애인 가족 여행을 다녀온 분이 보내온 편지입니다.

미얀마 학생미술경연대회 연다

11월 말 개최, 양곤에서 전시회도 가져

미얀마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아이들의 마음, 아이들이 바라는 걸 제일 잘 알 수 있는 게 그림이다. 방정환 선생의 글

어린이는 그리기를 좋아한다. 조금도 기교가 없는 순진한 예술을 낳는다. 어른의 상투를 재미있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뽀뽀보다 큰 상투를 그려 놓는다. 순사의 칼을 이상하게 보았을 때, 어린이는 순사보다 더 큰 칼을 그려 놓는다.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나! 얼마나 순진한 예술이나!



이 그림은 2018년, 양곤 변두리 보육원에서 가진 그림대회 때 원생이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그린 아이도 부모와 고향을 떠나 보육원으로 왔다. 이곳 보육원생은 560명 이나 된다. 아이들 마음에는 늘 떠나온 고향집이 자리 잡고 있나 보다. 자신이 사는 사원학교를 그린 아이는 한 명도 없었다.



한벗의 <휠체어 날개달기>와 <미얀마방정환기금>은 지난 2018년과 2023년, 보육원 3곳에서 그림대회를 열었다. 올해는 보육원생 뿐 아니라 양곤의 초·중·고교생도 참가하게 한다. 또 전시장을 빌려 입선작 전시까지 할 계획이다.

그림대회는 <어린이잡지사>가 주최하며 미얀마의 저명 화가 5명이 심사를 맡는다. 한벗이 그림 도구와 시상비 등 모든 경비를 지원한다.

■ 그림대회 11월 29일, 시상식 12월 1일.

미얀마어린이합창단 초청, 내년으로 연기!

미얀마 군부의 합창단 여권 발급지연으로 10월 초청을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미얀마 외교부가 여권을 9월 말 내주기로 했다가 내년 1월로 연기해 버렸습니다. 해서 항공권과 공연장, 숙박 등 모든 예약 취소로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한국행을 기다리며 설레었을 어린이들은 얼마나 실망이 클까요! 초청비를 보태주신 회원분들에게 송구합니다. 귀한 정성 간직하여 내년 초청을 준비하겠습니다.

미얀마 주재 외교관 초청 만찬에 합창단 공연



지난 10월 2일, 미얀마 한국대사관이 국경일을 맞아 개최한 미얀마 주재 외교관 초청만찬에 우리 어린이합창단이 출연하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만찬은 양곤의 롯데호텔에서 외교관 350명이 참석했는데, 지난 5월 휠체어 기증식 때 합창단 공연을 본 강금구 미얀마 한국대사님이 초청해주셨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초청비 기부해주신 분(한번)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자명 84,500원 ● 김옥렬 50,000원 ● 김진현 100,000원 ● 박원욱 (병원장, 이택규 사장 소개) 100만원 ● 박종성 50,000원 ● 서판임 (미얀마방정환 회원) 1만원 ● 양 숙 (전 소록도간호조무사) 5만원 ● 이매리 (전 달라스 교민) 30만원 ● 이명자 300,000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희 (미얀마방정환 회원) 5만원 ● 이용현 (본부 실장) 150,000원 ● 이윤경 (달라스 교민) \$500 ● 이택규 (전 한빛이동봉사대 이사장) 100만원 ● 조정복 (고 최준수 목사 부인) 10만원 ● 최재화 (경산복지재단 이사장) 100만원 ● 한정선 203,315원 ● 주미얀마 한국대사관 \$500 <p>합계 : 5,781,610원 (10월 16일 현재)</p> |
|---|--|

숙명여대 축제에 가다



우리 주간보호실에서 봉사하는 숙명여대생들이 숙대 축제에 우리 식구를 초대했어요. 처음으로 대학축제 구경에 나선 식구들은 여러 부스에서 반겨주었습니다. 재호 씨는 숙명여대의 마스코트를 페이스 페인팅을 받았고, 운환 씨는 클래식학과 부스에서 제비뽑기로 모두의 부

러움을 산 리코더 볼펜을 받았지 뭐예요. 다른 이용자들도 학생들이 직접 만든 맛있는 음료와 간식을 먹으면서 캠퍼스를 누볐답니다. 살뜰이 돌봐준 봉사학생들이 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축제 땀 우리도 부스를

신바람이 난 식구들은 내년 축제 땀 봉사학생들과 힘을 모아 특별 부스를 운영하자고 다짐하며 화이팅!

봉사해주신 숙명여대생 고맙습니다

□ **숙명여자대학교** : 김루비, 구주연, 박수빈, 윤아현, 김소연

□ **로타랙트**

김민서, 김여진, 김지은, 권효린, 노시연, 송예린, 송지현, 양세린, 엄지예, 우승아, 이수아, 정가은, 정소연, 조아령

여름 김치 나누기



김장김치가 떨어진 즈음, 카카오같이가치와 (주)레가토, 서울항외과의 기부금으로 여름 김치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중장년 1인 가구 등 모두 100가정에 전해드렸습니다. 카카오가치가치에 참여하신 2,083명의 손길이 맛있는 김치가 되었습니다.

추석명절 싱글벙글 한가위 축제



추석명절을 맞아 꾸러미 나눔과 주민 초청 율놀이 대회를 열었습니다. 특별히 명절에도 홀로 지내시는 분들을 모셔 이웃과 함께 하는 도타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율놀이를 마친 후에는 집집을 찾아 넉넉한 선물을 전해드렸구요. 이 행사를 위해 도움 주신 LH경기북부 고양사업 본부에 감사드립니다.

싸릿말 마을운동회 열어



우리 복지관의 대표 마을 축제인 네 번째 <싸릿말> 운동회가 지난 10월 11일, 100여 명의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신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침 밝은 날씨에 청/백으로 편을 나누어 시합을 치렀는데, 하나같이 어릴 적 학교 운동회 때처럼 상기된 얼굴로 열심이어서 추억의 그 시절로 돌아간 하루가 되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의 선물 보따리



망원동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한벗동지 바자회 소식을 듣고 커다란 선물 보따리를 보내 오셨습니다. 맛있는 떡과 구운 김, 달콤한 샤인머스켓, 새 옷 그리고 밥솥까지! 여기에 더해 바자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에게 나누어드릴 수 있는 파배기 50개도

기부해주셨답니다. 사장님은 한벗동지에서 자립해 나간 김인곤 님과 교분을 이어가시고 계시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주시며 동지 살림을 걱정해 주십니다. 이처럼 고맙고 귀한 이웃이 계시어 우리 식구들은 얼마나 든든한지요!

보내주신 음식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8월 17일~10월 16일)

[개인] 김명규 어머니(이용자) 식재료, 과일, 김민혁 부모님(이용자) 피자, 김영신(후원자) 사골곰탕, 김인곤(후원자) 핑크솔트 소금, 김인권(후원자) 고등어, 묵가루, 양념 돼지고기, 김종애(후원자) 고구마, 김지윤(실습생) 롤케이크, 노영진(후원자) 사과, 망원시장 정육점(후원자) 당노엔, 삼치, 박주용 부모님(이용자) 식재료, 부흥세탁소(후원자) 계란, 고구마순, 생수, 요구르트, 음료, 서민행(후원자) 쌀 10kg, 오상윤 어머니(이용자) 음료, 익명(후원자) 배추, 지만용 가족(이용자) 굴, 진 권 부모님(이용자) 식재료, 피노키오(후원자) 생닭.

[단체] 당가원 볶음밥, 자장면, 롯데카드 생활용품, 식재료, 장애인스포츠팀(임창섭대표) 과일, 재단본부 간식.

휠체어 좀 보내주세요!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의 호소



한빛과 연변 조선족장애인

10월 말 백진양, 김윤원 이사가 연길의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와 중증장애인 5가구를 방문했다. 이 단체는 한빛과 인연이 깊다. 한빛은 2014년과 2015년 전동휠체어 90대, 2018년 수동휠체어 40대를 기증했고, 정태룡, 허채란 장애인 부부가 재생불량빈혈로 고생하는 딸을 고치려 전 재산을 처분해 한국으로 오자 이영숙 회원이 수술비 1천만원을 기부해 완치시키기도 했다.

◀(연길로 돌아가 옷 수선 일을 하는 정태룡 부부)

중국 최우수 장애인단체

연변조선족지체장애인협회는 유명하다. 2017년 중국 장애인예술제에서 최우수상을, 2019년엔 우수 장애인 단체로 뽑혀 이춘자 회장이 시진핑 주석과 악수를 하기도 했다. 중국장애인 9천만명 중에서 10만도 안 되는 조선족장애인의 놀라운 활동력이다. 그런데 속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휠체어를 받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국가의 장애인복지는 휠체어를 주는 일에서 시작한다. 휠체어가 이동 곧 사회와 만나게 한다는 점에서 모든 장애인의 상징이기 때문이다. 현 대 중국은 휠체어를 살 수 없는 가난한 장애인에게도 휠체어를 주지 못하고 있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믿지 않았다.



한빛이 2018년에 기증한 수동휠체어가 장애인센터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유를 물었다.

“이 휠체어는 센터에 오는 장애인만 잠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방문하여 전동리모컨
100개를 기증했습니다.

장애인 오사카-나라 관광



지난 9월 말 3박 4일 일정으로 휠체어 사용 3분과 보조인 1명 등 4명이 강제숙 선생의 인솔로 ‘오사카’와 ‘나라’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현지 리프트 택시를 이용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1인당 140만원.

장애인 피부미용 서비스

피부미용 봉사해주신 교수님들 고맙습니다.
최경임, 권나경, 김미성, 김양희
10월 서비스받은 분, 장애인 3명, 보조인 2명



08 사람세상 10/11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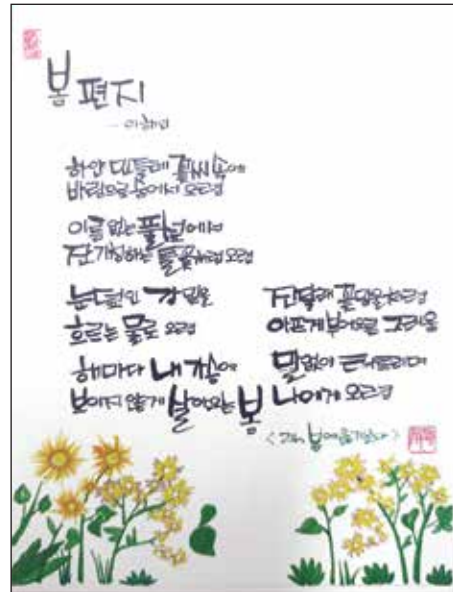
장애인 제주도 관광



한벗의 리프트승합차를 이용하는 장애인 제주 관광에 11월, 2팀이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한벗은 리프트승합차와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프트승합차에는 휠체어 2대가 탑승할 수 있으며 숙소는 12평 아파트로 5명이 묵을 수 있습니다.
문의 : 02-393-0661

시가 있는 예쁜 그림엽서

시인이시기도 한 이택규 사장님이 손수 그린 <시가 있는 그림엽서>를 기증해주셨습니다. 저명 시인들의 작품에 예쁜 그림을 넣었습니다. 한 장에 1,000원, 한 세트 10매. 구입하시면 미안마어린이합창단 초청기금으로 기부됩니다.



고 최준수 목사 1주기 추모 모임 가져

지난 10월 6일, 한빛회관에서 최준수 목사 1주기 추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최준수 목사의 생애를 돌아보는 사진을 보며 추억담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참석하신 분

백진양, 송미령(지축복지관장), 이민숙, 이바다(고양평화누리 대표), 이용현, 정지강 목사 부부(전 기독교서회 사장), 조정복(고인의 부인), 최명숙 이사, 최진숙, 최진경, 한동훈, 현성주(북경기신문사 편집국장), 현정선 목사, 등 14명

특별기부 감사드립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기호 명절 때마다 최상품 과일을 보내주십니다.

김경미(날개달기 회원) 매달 특별기부를 이어가십니다. 8, 9월 20만원

김애신(달라스/김애자 님 동생) 지난달에 이어 \$1,000

우명래, 이진영 와상장애인 가족여행을 다녀와서 5만원씩

윤남일(이동봉사회원) 한빛의 저금통 기부왕님이 오랜만에 동전 58,320원을

이윤경(달라스 교민) 어린이합창단 초청기금 \$500

이은옥(미안마방정환기금 회원) 5만원

장혜실(명지춘혜병원 이사장) 매월 병원교회 헌금을 기부하시는 외에 50만원을.

조정복(고 최준수 목사 부인) 미안마 방문 후 20만원과 최준수 목사 기금 80만원을

최춘애(조선족 장애인) 전동휠체어 기증에 고마워하며 10만원



재단의 새이사로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센터 이승일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11월은 고요히 묵상하는 달! 한뼉의 귀한 분들에게 손을 모읍니다.

2024.8월~9월 입금내역. ()안은 개월 수

한뼉재단 <미국 텍사스 교민 기부금(\$3,200)/9월>

달라스		킬린		
9월		9월		
김애신 \$1,000	장덕환 \$100	고사라 \$20	배경재 \$40	전 이사벨 \$20
김애자 \$40	정성일 \$200	고향미 \$20	백 수산나 \$30	장지수 \$20
김윤원 \$200	아리 \$10	김은희 \$20	양경자 \$20	조 마리나 \$20
문혜숙 \$500	이안 \$10	김데레사 \$20	유 베로니카 \$20	조용순 \$20
스텔라 \$150	루빈 \$10	김혜중 \$20	이 엘리자벳 \$20	최정임 \$30
이윤경 \$500	노아 \$10	미영 로사 \$20	이영란 \$40	카니 박 \$20
	제곱 \$10	민병형 \$20	이정숙 \$20	
계 \$2,740		계 \$460		

- ▶ 1,000원 문숙자(2)
- ▶ 2,000원 김계순(덕양/2) 김미란(2)
- ▶ 3,000원 강희춘(2)
- ▼ 5,000원

강난규(2) 강병철(2) 강하늘/장은혜(2)
 강하얀/장은혜(2) 공충식(2) 곽안나(2)
 곽환상(2) 구자근(2) 구재순(2) 김관중(2)
 김대현(2) 김동수(1) 김명문(2) 김미영(2)
 김선희(1) 김시홍(2) 김영희(2) 김유경(2)
 김준혁(2) 김태호(2) 김향미(2) 김혜숙(목동2)
 나호연(2) 노수진(2) 류소연(2) 문혜원(2)
 박범진(2) 박병건(2) 박상준(2) 박용훈(2)
 박정민(2) 박지현(2) 설대호(2) 엄민애(2)
 엄해영(1) 오형균(2) 유경희(당산2) 유해국(2)
 이동하/한귀남(2) 이관희(2) 이승희(2)
 이양훈(2) 이행남(2) 이호열(2) 임정리(2)
 정길순/박지양(2) 정해숙(2) 조명순(2)
 주우익(2) 최수진(2) 최원진(2) 한송이(2)
 한진숙(2) 홍영일(2) 홍혜경(2)

▼ 10,000원

(주)상정무역(2) (주)영화의료기(2) 강석보(2)
 강인호(2) 강필규(2) 구다완(2) 구영현/구인복(2)
 구자석(2) 권수영(2) 권오원/주은혜(2) 권인순(2)
 김경민(2) 김경석(2) 김교일(2) 김기석(2)
 김남중(2) 김동진(2) 김려원(2) 김말순(1)
 김민수(2) 김범수(2) 김보경(제천2) 김상순(2)
 김석미(2) 김수리(2) 김수현(구로2) 김숙자(2)
 김영지(2) 김환섭(2) 김용남(호창2) 김용선(2)
 김윤대(2) 김윤성(1) 김윤숙(2) 김은숙(2)
 김은자(2) 김자경(3) 김재환(2) 김종용/전정원(1)
 김준형(2) 김진원(안산2)
 김진현/이주원/이도원(2)

김철희(2) 김학철(2) 김한영(2) 김향(2)
 김현준(2) 김형식(2) 김혜정(2) 김화중(2)
 노현옥(2) 도현정(2) 류희수(2) 민경양(2)
 민운기(2) 민중훈(2) 박갑수(2) 박경남(2)
 박상도(3) 박선영(2) 박순화(2) 박영호(2)
 박영희(2) 박윤미(2) 박인자(2) 박일현(2)
 박종성(안양2) 박지숙(2) 박지훈/정선희(2)
 박태진(2) 박혜정(2) 박희정(2) 반중대(2)
 방계영(2) 방상호(2) 배경미(2) 배재수(1)
 배춘숙/김신근(2) 백운재(2) 봉근재(2)
 서동범(2) 서미란(2) 서상웅(2) 서영란(2)
 석지민(2) 석지은(2) 석창록(2) 성경희(2)
 송기영(2) 송유자(2) 신동혁(2) 신성아(2)
 신영길(2) 신인아(2) 심우진(2) 심지은(2)
 안병훈(2) 안성진(2) 안혜정(2) 양일섭(2)
 엄해경(2) 오상만(2) 오성근(2) 오용석(2)
 오윤서(2) 윤남일(2) 이근수(2) 이금주(2)
 이동인(2) 이명옥(1) 이명진(2) 이명철(2)
 이미지(2) 이민숙(2) 이상선(1) 이상일(2)
 이상조(2) 이선웅(3) 이상직(2) 이승균(2)
 이양재(1) 이영근(2) 이영환(2) 이외선(2)
 이용현(2) 이은주(2) 이재원(2)
 이재임/정윤택(2) 이주희(은평2) 이중태(2)
 이지영(미아2) 이지원(2) 이진훈(2) 임경민(2)
 임동상(2) 임옥자/박병대(1) 임유아(2)
 장길성(2) 장치복(2) 장철성(2) 전미희(2)
 전민우(2) 전소연(2) 전수익(2) 전현규(2)
 정규성(2) 정미영/김경석(2) 정봉열(2)
 정성훈(2) 정수연(1) 정수익(2) 정수화(2)
 정승은(2) 정인기(2) 정창교(1) 정창용(2)
 정태영(2) 정현주(2) 조근제(2) 조기권(2)
 조선행(2) 조성숙(2) 조여숙(2) 조재선(2)

조정복(2) 조진영(2) 조화기(1) 지형근(2) 천성현(2)
 최강석(2) 최경임(2) 최명선(2) 최소희(2) 최태도(2)
 최호순(2) 최희환(2) 추정일(2) 태효원(2) 하정희(2)
 한성진(2) 한혜숙(2) 함형덕(2) 허옥희(2) 홍관선(2)
 홍대식(2) 황백화(2) 황연희(2) 황정일(2)

CUI XIANGY(1)

▶ 15,000원 김병석(2) 현영돈(2)

▼ 20,000원

(주)인스월드닷컴(2) 강만희(2) 강순화(2)

강영철(2) 강희정(2) 김민주(울산2) 김승태(2)
 김영복(2) 김영자(2) 김용신(2) 김인숙(2)
 김준희(2) 김학준(2) 김혜은(2) 김훈(2)
 문장렬(2) 민희선(1) 박지용/유정영(2)
 백봉현(2) 백지웅(2) 서성민(2) 신광재(2)
 신금옥(2) 심경애(2) 안현국/하미경(2) 양숙(2)
 양홍대(2) 오정연(2) 유광주(2) 유시영(2)
 이광범(2) 이남숙(2) 이상규(2) 이서중(1)
 이선용(의정부2) 이성재(2) 이윤희(1) 이정림(2)
 이주형(2) 이희재(2) 임정순(2) 조윤식(2)
 최재명(2) 한덕희(2) 한충길(2) 현승혜(1)

▼ 30,000원

강재철(2) 금재호(2) 김계영(1) 김은경(2)
 김홍현(2) 나호진(2) 민유숙(2) 민정범(2)
 박상우(고양2) 박용길(2) 오청근(2)
 윤경자(무악2) 이관희(2) 이선희(2) 이양재(1)
 이희달(2) 임용재(2) 장해실(1) 최경희(2)

▶ 35,000원 박종성(2)

▶ 40,000원 서판임(2) 정병배(2)

▼ 50,000원

고명지(2) 김익규/구자명(2) 김은영(2)
 김은주(2) 김현수(2) 민택산업/남기백(2)
 백진양(2) 신화용(2) RTX스포츠(2)
 오명희(2) 윤지연(2) 이정숙(2) 이중우(2)
 조홍준(2) 최혜자(2)

▼ 100,000원

(주)우석엘리베이터(2) (주)힐로피아/김윤제(2)
 강무진(2) 김윤희(2) 박지연(2) 안성환(2)
 오정선(2) 유영옥(2) 이승수(2)

▶ 150,000원 채진석(2)

▶ 200,000원 오병철(2) 임인경/최홍식(2)

▶ 900,000원 뉴라이프교회(명지춘혜, 2)

〈힐체어날개달기〉

▶ 5,000원 조성우(2)

▼ 10,000원

고은미(2) 고은순(2) 권은희(1)
 김계호/이명희(2) 김동현/김승기(3)
 김명석(2) 김서주(2) 김순영(2) 김순이(2)
 김영희(2) 김용환A(2) 김이태(2) 김정애(2)
 김정자(2) 김정태(2) 김진모(2) 김창복(3)
 김태윤(2) 김현숙(노원)(2) 남향숙(2)
 민선숙(1) 민혜영(2) 박만수(2)
 박수경(2) 박신용(2) 박신자(2) 박옥자(2)
 백마강(2) 백순정(2) 서정숙(2) 서판임(2)
 손기현(1) 신승엽(2) 안지민(2) 안지우(2)
 양노식(2) 오원희(2) 유은수(2) 이가영(2)
 이광호(2) 이상분(2) 이영분(2) 이은영(2)
 이은희(2) 이자영(2) 이재숙(2) 이지수(2)
 이진수(2) 이해령(2) 이현경(2) 이혜선(2)
 이희승/김향련(2) 임연하(2) 임찬예(2)
 임채영(2) 임현주(2) 장궁자(2) 장은솔(2)
 장은수(2) 장일순(2) 장진석(2) 장화순(2)
 전도삼(2) 전영희(2) 전옥순(2) 전해경(2)
 정금숙(2) 정나원(2) 정안나(2) 정애리(2)
 정영순(2) 정우담/정원균(2) 정재갑(2)
 정재호(2) 정재희/주희(2) 정현목(2)
 조용환(2) 조혜숙(2) 최광원(2) 최유경(2)
 최윤지(2) 한정민(2) 한혜영(2) 홍경숙(2)
 홍상문(2)

▼ 20,000원

강인숙(2) 김경숙(3) 김덕길(2) 김선희(6)
 김영숙(2) 김일생(2) 김효생(2) 민병임(2)
 박정경(2) 오문영(2) 이상희(2) 이해숙(1)
 장연우(2) 장지분(2) 장혜실(1) 장혜연(2)
 전승환(2) 정경호(2) 조수현(2) 조승호(2)
 최대우(2) 최정희(2) 최진숙(2) 한광희(2)

▼ 30,000원

(주)송지(2) 김선정(2) 김옥수(2) 김옥주(2)
 이태자(2) 이형재(2) 최진경(2)

▼ 50,000원

강옥순(2) 김혜명(2) 박봉희(2) 이승훈(2)
 장영순(2)

▶ 100,000원 김삼복(2) 박형상(2)

▶ 120,000원 최명숙(2)

〈한뼘동지〉

▶ 1,000원 김연서(1) 이태준(2)

▼ 2,000원

김경선(2) 김동욱(1) 김미라(1) 김승빈(2)
 김민기(1) 임동혁(1)

▶ 3,000원 양옥경(1) 이영희(1)

▶ 4,000원 한혜숙(1)

▼ 5,000원

고현우(2) 공아영(2) 권명현(2) 기효순(2)
 김계자(2) 김민서(2) 김용락(2) 김인경(2)
 김재열(2) 김한미(1) 마은영(2) 맹덕섭(2)

문소현(2) 박미현(2) 박연신(1) 박지숙(2)
 박창범(2) 서정민(2) 송효림(2) 심상우(2)
 양인희(2) 오현숙(2) 우지영(2) 육순우(2)
 윤채운(2) 이명희(1) 이영순(1) 이해란(2)
 임정혜(2) 장재희(1) 정민영(2) 정선희(2)
 정정임(2) 정창희(1) 진미경(2) 최은미(2)
 한경희(2)

▶ 6,000원 장우제(1)

▶ 7,000원 강선희(1) 이일규(1)

▼ 8,000원

김명선(1) 오경신(1) 한상순(1) 홍수연(1)

▶ 9,000원 김유식(1) 최재혁(1)

▼ 10,000원

강순기(2) 강인수(2) 강홍선(2) 강현(2)
 고유미(2) 박봉현(2) 광영현/장형기(2)
 박우경(2) 구성모(2) 권오준(2) 권지연(2)
 김가홍(2) 김기래(2) 김면봉(2) 김명순(2)
 김명희(일산2) 김미아(2) 김미애(2)
 김미진(2) 김병준(2) 김상수(2) 김상한(2)
 김선옥(2) 김석경(2) 김선향(2) 김선희(2)
 김선희(1) 김성길(2) 김세연(2) 김수진(1)
 김선향(2) 김신욱(1) 김연숙(2) 김연주(2)
 김영승(2) 김영진(2) 김우주(2) 김윤근(2)
 김윤희A(2) 김은희(1) 김인곤(2) 김인순(2)
 김인숙(2) 김정미(2) 김정석(2) 김정우(2)
 김진수(2) 김철호(2) 김태연(2) 김하나(2)
 김혜정(2) 김호영(2) 김희선(1) 남성현(2)
 노선이(2) 노신규(2) 노영진(2) 노형승(2)
 류재남(2) 박리라(2) 박일현(2) 박성준(2)
 박은숙(2) 박장훈(2) 박정숙(2) 박정신(2)
 박정일(2) 박지원(2) 변기정(2) 변아름(1)
 서동연(2) 서민향(2) 서인숙(2)
 서정민(상암)(2) 성다혜(2) 소기자(2)

송재하(2) 안영미(2) 양용준(2) 양정현(2)

양현석(2) 양현태(2) 여일구(2) 오광진(2)

오성진(2) 우기후(2) 우춘자(2) 원현선(2)

유윤미(2) 윤정애(2) 윤태훈(2) 이경진(2)

이경혜(2) 이규원(1) 이상수A(2) 이상수B(2)

이상우(1) 이성림(1) 이소정(2) 이송순(2)

이승재(2) 이연호(2) 이영금(2) 이영순(2)

이에인(2) 이에준(2) 이용식(2) 이용현(2)

이원준(2) 이원철(2) 이은서(2) 이재호(2)

이종욱(2) 이준복(2) 이지영(2) 이태환(2)

정다미/김재훈(2) 정영석(2) 정영혜(1)

정완교(2) 정은숙(2) 정재영(2) 정진하(2)

제갈윤(2) 조수연(2) 조인규(2) 채순옥(2)

채영심(2) 최경희(2) 최선영(2) 최은미(서초2)

이혜원(2) 이희권(2) 이희숙(동지2)

인보광/박수빈/박혜빈(2) 임경주(2) 임경철(2)

임진민(2) 임진희(2) 임호정(2) 장순주(2)

장승희(2) 장영숙(2) 장은정(2) 장철만(2)

장현주(1) 전 에스더(2) 정다미/김재훈(2)

정수진(1) 정영석(2) 정영진(2) 정완교(2)

정은숙(2) 정재영(2) 정진하(2) 조수연(2)

조인규(2) 채영심(2) 최경희(2) 최선영(2)

최순우(2) 최은미(서초2) 최종금(2) 추지훈(2)

하인석(2) 한지행(2) 허지원(2) 황진숙(2)

▶ 11,000원 김진영(1)

▼ 12,000원

김건(1) 김규상(1) 박일화(1) 신대용(1) 최미정(1)

▶ 14,000원 임미숙(1) 임채미(1)

▶ 15,000원 손지용(1) 임규은(1)

▶ 16,000원 박지인(1)

▶ 17,000원 권혁민(1) 박소정(1) 정예진(1)

▶ 18,000원 백은경(1) 안희정(1)

▼ 20,000원

강신순(2) 강희정(1) 김경란(2) 김미진(2) 김봉주(2)

김성우(2) 김여은(2) 김중국(1) 김희량(3) 박승환(2)

백진선(1) 송선미(2) 우영욱(2) 원석범(2) 유선민(2)

이병수(2) 이선우/김연희(2) 이정림(2)

이지영(강서1) 이태원(1) 조기택(2) 정현주(2)

하복덕(2) 한재형(2) 한혜림(2) 홍영미(1) 황민규(2)

▶ 21,000원 서보석(1)

▶ 25,000원 김상아(1) 유민화(1) 이호영(1)

▶ 26,000원 김미정(1) 김혜진(1) 김선애(1)

▶ 27,000원 김수정(1) 정명주(1)

▶ 28,000원 정홍기(1)

▶ 29,000원 이희영(1)

▼ 30,000원

강동룡(2) 권현정/김성철/김주영(2) 김계엽(2)

김윤영(2) 김현도(2) 박희수(2) 오보균(2) 윤일심(2)

이웅기(2) 이지윤(2) 이해숙(2) 임재창(2) 정은영(2)

정재연(2) 조길용(2) 조병훈(2) 채한석(2) 최갑석(2)

함미용(2) 황정현(2)

▶ 33,000원 왕중영(1)

▶ 37,000원 김정화(1)

▶ 40,000원 백승열(2)

▼ 50,000원

곽형우(2) 권영수(2) 김간란(4) 김도연(1)

김설화(1) 김숙희(1) 김장옥(2) 김종애(1)

김종호(2) 김한서(2) 윤미선(2) 이진희(1)

이태균(2) 조성윤(2) 조항미(2) 홍영미(2)

▶ 52,000원 이희봉(1)

▶ 55,000원 맹은지(1)

▶ 65,000원 방애림(1) 정종훈(1)

▶ 68,000원 김지윤(1)

▶ 75,000원 김대균(1)

▶ 76,000원 김범준(1)

▶ 80,000원 김문희(1) 진주형(1)

▶ 86,000원 박준희(1)

▼ 100,000원

김은성(1) 박상봉(2) 유정자(2) 유현주(1)

이채은(1) 주지연(2)

▶ 134,200원 김은주(1)

▶ 176,000원 임수진(1)

▼ 200,000원 열림교회(1) 하대주(2) 한송이(1)

▶ 220,000원 채순옥(1)

▶ 500,000원 서울서부지방검찰청(1) 정의승(1)

▶ 616,000원 서강어린이집(1)

<한벗동지와 함께하는 '윤광이의 하루'>



- ▶ 5,000원 박현민(2)
- ▼ 10,000원
 구인회(2) 김규백(2) 김선식(2) 김왕수(2)
 안성윤(2) 이광석(2) 이수희(2) 이종현(2)
 이준구(원주,2) 이탄희(2) 임건태(2)
 전경락(2) 정형선(2) 최봉계(2) 홍원표(2)
- ▼ 20,000원
 강완정(2) 강진구(2) 박성용(2) 박영숙(2)
 손병산(2) 이강우(2)
- ▶ 30,000원 김경준(1) 김기수(2)
- ▶ 50,000원 김혜원(2)
- ▶ 70,000원 최수진(2)
- ▼ 100,000원
 강은모(2) 오유인(2) 이준구(2) 차성안(2)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시설>

- ▶ 5,000원 김운수(2)
- ▼ 10,000원
 김미영/허규민(1) 김세훈(2) 김인기(2) 박채련(2)
 엄경경/김근일(1) 윤준호(2) 이경주(2)
 이경화/이기훈(2) 이수경(2) 이호식(2)
 정미숙/박성수(2) 최금열(2) 최수경(2)
 한정환(박종미)(2) 홍봉기(2)
- ▶ 15,000원 김민정(2)
- ▼ 20,000원 김정훈(2) 김종범(2) 신효숙(2)
- ▼ 30,000원
 신두철(2) 안소영(2) 오선주(2) 이원재(2)
 한정환(한가현)(2)
- ▼ 50,000원
 신현관(2) 심진섭(2) 장안태(2) 홍지웅(2)

<미얀마어린이합창단>

- ▶ 3,000원 서지영(2) 성주일(1)
- ▼ 5,000원
 강신선(2) 김갑성(2) 김세현(2) 민계숙(2)
 민성숙(3) 천만웅(2)
- ▼ 10,000원
 고재오(2) 김광기(2) 김양우(2) 김연식(2) 김정(2)
 김현욱(2) 김희정(2) 박순애(2) 백남호(3)
 박향림/비영리단체참빛국제협회(2) 성일경(2)
 심혜숙(2) 안재은(2) 오세현(2) 원영철(2) 유용운(1)
 이성순(2) 정나원(2) 정역순(2) 조광희(2)

조천희(2) 최관용(2) 최광익(2) 한치만(2)

- ▶ 20,000원 서수진(2)
- ▶ 30,000원 유근(3)
- ▶ 50,000원 주혜란(2)

<최준수 목사기금>

- ▶ 83,330원 최준수-이자(2)
- ▶ 800,000원 조정복(1)

<기부금 보내는 계좌>

한벗재단 본부
 국민 763601-04-002564

휠체어날개달기
 국민 763601-04-095562

미얀마방정환기금
 국민 640601-04-006175

미얀마어린이합창단
 국민 763637-04-004336

최준수 목사 기금
 국민 763601-04-175945

한벗동지
 국민 577301-01-127870

한벗장애인주간보호실
 국민 763601-04-078400

고양시지축종합복지관
 농협 351-1206-0089-03

통권 305호

펴낸날 : 2024년 11월 10일
 펴낸이 : 한벗재단
 주소 :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69길 42-3
 전화 : 02)393-0661(대)
 핸드폰 : 010-6747-0661
 이메일 : hanbeotorg@hanmail.net
 홈페이지 : www.hanbeot.org

임원/법인이사

백진양(대표) 장우형(부이사장), 권진동, 김윤원
 김정희, 김혜명, 유시영, 채진석, 최명숙,
감사 : 강만희, 김훈

운영위원

: 임춘규(위원장), 조재선(부위원장),
 강제숙, 김영균, 이승우, 장혜선, 청년한벗,
 한동훈, 현승혜

부서별 연락번호

한벗동지 : 02)336-3100
 주간보호실 : 02)713-5050
 지축복지관 : 02)381-8938
 한국휠체어기증본부 : 02)713-1005

재정보고 (24.8월~9월/2개월 합산)

단위 : 원

입 금		지 출			
내 역	금 액	내 역	금 액		
후원금	정기후원(재단)	13,561,000	인건비	급여, 사회보험	8,777,901
	특별후원금	900,000	시설지원	동지, 주간보호, 지축	6,165,000
	미국후원금	3,245,097	운영비	수용비, 공공요금 등	4,171,769
	동지/주간	6,350,000	업무비	접대비 등	1,977,400
	날개달기	5,540,000	소식지간행	인쇄비, 우송비	1,611,380
	방정환기금	1,623,000	공과금	보험료 등	1,571,566
	미얀마합창단기금	5,559,000	사업비	휠체어날개달기	4,680,000
	최준수 기금	966,660		방정환기금	3,174,000
임대수입	원룸 관리비 등	1,928,627		게스트룸	104,830
공모수입	외부기관지원금	52,597,414		한벗투어	730,290
사업수입	이용료 등	5,726,000		미얀마 휠체어 기증	42,900,000
차입금	차입금	300,000		어린이합창단 초청	3,410,000
기타	잡수입	2,675,845		와상장애인 여행	9,697,414
				기타 사업 지원	883,805
			상환금	원금, 이자, 대여	11,414,565
총 계		100,972,643	총 계		101,269,630
			잔 액		-296,987

※ 위 보고는 시설을 제외한 재단본부 재정사항입니다.



“우리 현오가 바다를 보다니!!”

엄마가 눈물을 보이며 감격합니다.

우리 가족이 처음 함께한 여행.

침대형휠체어와 누운 채 탈 수 있는 버스

바닷가 모래사장과 해변 데크 길, 카페와 바다가 보이는 식당

아름다운 세상 다녀왔습니다.

- 현오 가족(현오, 엄마, 누나, 형)

‘반려견에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애견호텔 광고문이다. 반려견 인구 1,800만명. 이들이 애견을 맡기고 여행 갈 수 있는 애견호텔과 펜션 등 수백 곳 생겼다. 지자체도 반려견 쉼터를 운영한다.

Hotels.com, Booking.com 등 여행업계도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1박에 평균 7만원

애견호텔에 맡기려면 신청 조건이 까다롭고 선착순이다. 공격성이 있거나 미접종, 중성화 수술하지 않은 수컷은 받지 않는다. 그래도 수요가 넘친다. 가격은 보통 1박에 4만~10만원이지만 목욕과 빗질, 약 먹이기, 데려오기까지 하면 1박에 16만~25만원하는 곳도 있다.

연휴나 주말에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반려견 키우지 않아도 집을 못 비우는 사람들이 있다. 치매환자 가족이다. 애견호텔은 있지만 치매환자 맡길 곳이 없어서 이다. 아니, 있긴 있다. 복지부가 지정한 단기보호시설인데, 서울에 있는 32곳에 연락해보니 7곳만 받는단다. 이 중 4곳은 요양원이다. 지방 70개 도시엔 이마저 없다. 2022년도 이용률은 0.13%. 만 명당 13명이 이용했다니 있으나 마나이다. 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럴 이유가 있다.

일상에서 외떨어진 돌봄 가족

치매환자 100만명. 요양시설 대신 집에서 돌보는 환자는 75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이들 가족도 일상과 사회에서 단절되어 주말이나 명절 연휴 여행은 꿈도 못 꾸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겪는 고통 또한 큰 문제이다. 하지만 우리의 복지정책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뼘은 치매환자 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치매환자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